

## 4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혼조 마감	하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는 연방주택금융국(FHFA) 주택가격지수가 예상 밖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반등했고 웰스파고와 AT&T, 맥도날드의 실적이 기대를 웃돈 것도 지수 상승을 지지했음. 그러나 모간스탠리가 월가 예상을 넘어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점이 부각되며 장막판 금융주 매물이 쏟아졌고 제너럴모터스(GM)가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악재여 뉴욕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하였음. 다우 지수는 등락하며 장중 한때 8,000선을 탈환하기도 했으나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886.57로 전일대비 82.99포인트(1.04%) 하락했음.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46.12로 2.27포인트(0.14%) 상승했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843.55로 6.53포인트(0.77%) 내렸음.
美 주택가격 `2개월 연속 상승`	미국의 주택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2월 주택가격지수가 전월대비 0.7% 상승했다고 밝혔음. 이는 두 달 연속 상승세이고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은 2년만에 처음임.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5% 하락했고 지역별로 캘리포니아 지역 주택가격 낙폭이 19%로 가장 컸음. 최근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실제로 지난 6개월간 모기지 금리는 1.6% 하락했음. 이에 따라 모기지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유가 등락 끝 상승	국제 유가는 등락 끝에 소폭 상승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30센트(0.6%) 오른 48.85달러로 마쳤음. 이날 유가는 원유 재고가 1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장중 47.7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음. 그러나 주택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로 돌아섰음.
IMF, 내년 한국 성장률 1.5%로 하향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예상했던 -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의 경우 종전 4.2%에서 1.5%로 하향 조정. 내년 수정치 낙폭은 2.7%포인트로 주요국 중 가장 컸지만 올해 성장률은 유일하게 종전대로 유지. 이런 전망은 내년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V자형 전망에서 각각 완만한 회복이나 침체 장기화를 점치는 U자형이나 L자형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됨.

제목	주요 내용
코스피 연중최고...환율 하락	국내 증시는 미국발 호재와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행진을 이어갔음.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9.21포인트(1.44%) 뛴 1,356.02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 이날 코스피지수는 증가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1,367.69로 마감했던 지난해 10월14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임.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순매수를 바탕으로 한 주가 강세로 하락.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환율 1원 내린 1,348.5원에 거래를 마쳤음.
현대차그룹, 올해 4천명 신규채용	현대차, 기아차그룹은 2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09년 그룹 사회책임위원회'을 열어 2009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음. 또 현대, 기아차그룹은 지난 2월 발표한 글로벌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올해 초 이미 실시한 300명 규모의 대학생 인턴에 이어 1000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3년간 100명 규모의 글로벌 인턴제도 역시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음.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1.3%로 하향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0.5%보다 1.8%포인트나 낮아진 것.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3%보다 1.1%포인트 낮은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
IMF "韓 내년성장률 1.5%, V자회복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물 것으로 전망. 이런 전망치는 지난 1월 제시했던 전망치 4.2%보다 2.7%포인트나 낮은 것.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1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 IMF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의 안정세를 보인 뒤 내년에는 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의 경우는 올해 2.9%, 내년 3%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
골드만, 中 성장률전망 6%→8.3% '상향'	골드만삭스가 22일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8.3%로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는 종전 6.0%에서 단번에 2.3%p나 전망치를 상향 변경. 이는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8%보다 높은 수준. 해외 유력기관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8%대 이상으로 전망한 것도 처음.
"中 대도시 이주민 3천만명 실직할 것"	중국 대도시에 있는 3,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22일 발표. 중국 정부가 기존에 예상한 2,000만명보다 50% 많은 규모.
엔화 강세, 일본 수출 급락세 제동	22일(현지시간) 오후 3시 38분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0.59엔(0.59%) 하락(엔화가치 상승)한 98.14엔을 기록. 이날 발표된 일본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6%, 3월(49.4%)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 이로 인해 일본 경기가 최악의 침체는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엔화 강세의 배경.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